

# 『永嘉誌』를 통해 본 安東 佛塔의 전승과 그 의의

## 신 용 철\*

- I. 머리말
- II. 안동 지역 불탑의 현황과 편년
- III. 『永嘉誌』를 통해 본 안동 불탑의 성격
- IV. 불탑의 전승과 안동민의 인식
- V. 맺음말

### I. 머리말

오늘날 안동은 유교문화의 중심지로 인식되고 있으나 고대부터 불교문화가 크게 융성하였으며, 이를 입증하듯 전국 시군 가운데 古都 경주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탑이 남아 있는 지역이다. 특히 안동 지역에서는 온전한 형태로 불탑이 전해져 왔다는 특성이 있다. 이는 탑의 수리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안동에 이처럼 많은 탑들이 존재 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며, 안동민들은 당시 불탑을 어떻게 인식하고 전승했는가라는 물음이 본고의 출발점이다.

지금까지 불탑의 연구는 건립의 문제에 치중된 감이 없지 않는데 본고에서는 건립보다

---

\* 통도사성보박물관 학예실장

는 전승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흔히 고려 개국과 함께 사탑 건립의 기본 원칙이 된 裨補寺塔說은 신라 말 道說에 의해 제창된 사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해당 문헌들 대부분이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집중되어 문헌 기록만으로는 사실을 구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필자는 안동 불탑의 조탑 장소, 전승과정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헌 기록의 미비점을 실물로 보완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안동의 불탑은 지역민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전승되어 왔으며 이는 왕조의 변경 혹은 당시 지배적 관념이었던 유교와 관계없이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건립된 불탑에는 각 시대와 지역에 따라 독특한 불탑관이 반영된다. 그러나 호국적 불탑관이든, 개인의 추복적 불탑관이든 시대나 지역에 관계없이 현세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불탑관은 전시대를 통해 꾸준히 지속되었다. 본고에서 안동 불탑 역시 지역과 안동민의 이익을 앞세우는 공익적 개념의 불탑관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를 통해 현재까지 많은 이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안동 전탑집중설에 대한 주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안동 지역 불탑의 현황과 편년

탑은 재질에 따라 목탑·전탑·석탑으로 나뉜다.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로 보면, 안동 불탑 가운데 목탑은 확인된 바 없고 석탑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전탑이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안동 지역의 전탑 가운데 탑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신세동 전탑, 동부동 전탑, 조탑동 전탑 등 3기에 불과하지만 발굴과 현장조사가 진행되면서 총 7기의 전탑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sup>1</sup> 안동의 전탑은 조탑동 오층전탑을 제외하면, 7층이라는 공통성을 띠고 있다. 반면 석탑은 지금까지 전탑이라는 안동탑의 특수성에 가려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다. 현재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석탑은 약 19기 정도이나 사찰 혹은 절터에 탑재로 잔존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20기를 훨씬 넘는다.<sup>2</sup>

<sup>1</sup> 신세동 전탑과 동부동 전탑은 『永嘉誌』의 여러 문헌에 소개된 法興寺 塼塔과 法林寺 塼塔이 확실함으로 명칭이 수정되어야 한다. 필자 역시 이전에 적극 동의하나 아직까지 정식으로 명칭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영가지』를 인용할 때는 문헌의 명칭을 또한 실제 탑을 지칭할 때는 기존의 명칭인 신세동 칠층전탑, 동부동 오층전탑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도 1 신세동 전탑 기단부 팔부중상

도 2 진전사지 삼층석탑 기단부 팔부중상, 9세기

안동 지역 전탑에 대해서는 조선시대까지 여러 차례 중수가 있었으므로 현재 탑에 쓰인 벽돌이나 탑의 비례 등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전탑의 초창 시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초창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신세동 칠층전탑에서 초창의 흔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무질서하게 배치된 기단부의 신장상이다. 현재 남아 있는 19구의 신장상 가운데 도상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것은 일부 사천왕상과 팔부중상이다(도 1). 특히 도상이 확실한 팔부중상은 경주 지역의 ‘聽法形 팔부중상’과는 달리 진전사지 삼층석탑, 선림원지 삼층석탑, 신계사 삼층석탑 등에서 보검 등을 주요 지물로 들고 있는 소위 ‘待衛形 팔부중상’과 동일 도상을 보이고 있다(도 2).<sup>3</sup> 이들 석탑의 제작시기를 9세기 이후로 편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동 신세동 전탑의 편년을 비슷한 시기로 볼 수 있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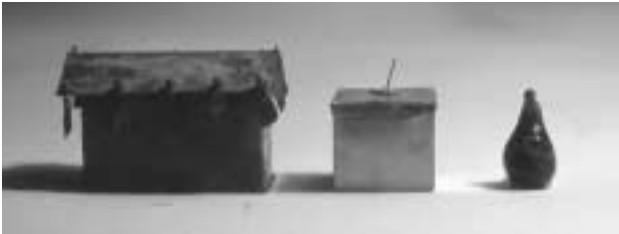
<sup>2</sup> 비록 부재에 불과하지만 광흥사, 불광사, 조탑리사지 등과 안동대학교 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인근에서 옮겨온 다수의 탑재들이 있다.

<sup>3</sup> 팔부중상의 도상의 계보에 있어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경주 지역과 경주 이외 지역의 도상이 상이한 점을 들어 도상적 분류를 나누고 있다. 그런데 2부류의 도상에 있어 경주 지역은 각종 경전에 언급된 聽法者로서의 팔부중이 표현된 반면, 경주 이외의 도상은 보검 등을 주요 지물로 들고 있어 탑을 수호하는 待衛의 개념으로 성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水野さや, 「韓國江原道襄陽陳田寺址三層石塔の八部衆像について」, 『美術美術史研究論集』 16호(1998), pp. 60-63; 申龍澈, 「統一新羅 八部衆像의 考察」, 『신라문화제 학술논문집』 제24집(2003), pp. 175-176; 韓載沅, 「統一新羅 石塔浮彫 八部衆 圖像과 配置 研究」, 『미술사연구』 20(2006), pp. 224-230 참조.

<sup>4</sup> 陳田寺址 三層石塔 팔부중상의 제작시기는 대체로 9세기 초에서 중엽으로 보고 있다. 曹元榮, 「신라시대 팔부신 중상 연구」, 『역사와 경계』 39(부산경남사학회, 2000), pp. 65-66; 田正中, 「新羅石塔 八部衆像의 樣式과 變遷」, 『文化史學』 16(문화사학회, 2001), pp. 146-147; 문명대, 「신계사 삼층석탑 팔부중상의 연구」, 『金剛山 神溪寺』(대한불교조계종 성보문화재 학술총서 10, 2002), p. 158; 申龍澈, 위의 논문, pp. 175-176; 韓載沅, 「統一新羅 石塔浮彫 八部衆像 研究」(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 116 참조.



도 3 동부동 전탑 2층 탑신 금강역사상, 9세기



도 4 임하사 전탑지 발견 사리장엄구, 9세기, 안동대학교박물관 소장

동부동 전탑의 경우 초층 탑신 감실 하단부의 안상과 2층 탑신 판석에 조각된 인왕상이 9세기로 편년되고 있으며(도 3),<sup>5</sup> 임하사 전탑의 경우 사리기의 제작시기를 9세기에서 10세기경으로 보고 있다(도 4).<sup>6</sup> 조탑동 전탑은 초층 탑신의 금강역사상의 신체모델링이 초당양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 8세기 중엽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sup>7</sup> 위축된 인체표현으로 9세기 중엽 이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sup>8</sup> 또한 최근 진행된 발굴조사에서 전탑지 유구의 상한을 나타내어 초로 보고 있다.<sup>9</sup> 이 같은 편년 요소들을 조합해보면, 전탑의 성립시기는 대체로 9세기 중후반 이후로 볼 수 있다.

5 文明大, 「韓國塔浮彫像의 考察(1)」, 『佛敎美術』 4(東國大博物館, 1979), p. 99; 白南珠, 「金剛力士像의 成立과 展開」, 『美術史學研究』 208호(한국미술사학회, 1995. 12), p. 105.

6 『불사리 신앙과 그 장엄』(통도사성보박물관, 2000), pp. 118-119에서는 9세기로, 『佛舍利莊嚴』(국립중앙박물관, 1991), p. 117에서는 10세기로 보고 있다.

7 白南珠, 위의 논문, p. 105.

8 文明대, 위의 논문, p. 98.

9 『安東 造塔里寺址』(경북문화재연구원, 2007), p. 218.



도5 옥동 삼층석탑, 9세기,  
현재높이 5.79m  
도6 임하동 십이지석탑,  
9세기, 현재높이 2.74m

안동 지역의 통일신라시대 석탑으로는 옥동 삼층석탑과 임하동 십이지석탑이 있다. 옥동 삼층석탑은 하층기단의 갑석이 변형을 보이고 있고 장식적 안상을 새겨 넣은 점(도5), 임하동 십이지석탑은 상·하층기단 면석의 신장상에서 제작시기를 각기 9세기 초반경과 9세기 말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도6).<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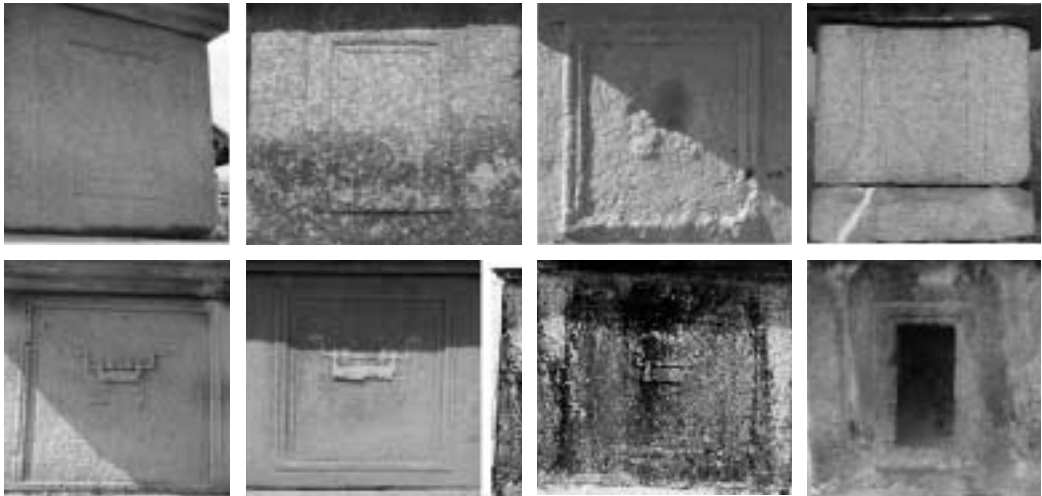
고려시대에 이르면 각 부분에서 현저한 변형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기단 갑석이 두꺼워지며 신라석탑과는 달리 각호형과 갑석 부연이 생략된다. 또한 간략화에 변화를 주려는 듯 상층 갑석에 복련 장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안정감보다는 상승감을 강조하려는 의식 때문에 다층의 석탑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기단 면석을 좁고 높게 설정하려다 보니 세장형 탑이 다수 등장한다.<sup>11</sup> 앞서 언급한 간략화와 생략 등이 죽전동 삼층석탑, 봉정사 삼층석탑, 안기동 삼층석탑, 봉림사지 삼층석탑(도7) 등에서 보이며 상대 갑석에 복련을 새겨놓은 탑 등이 임하동 동삼층석탑(도8)과 연화사 석탑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안동의 석탑 19기 가운데 10기가 문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석탑에서 초층 탑신은 한 돌로 조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굳이 문비를 조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수 석탑에 문비가 나타난다는 점은 이례적이다(도9). 문비의 형태는 기년명 탑인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1010), 포항 보경

<sup>10</sup> 허형욱, 「통일신라 범천·제석천상 연구」(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p. 121.

<sup>11</sup> 안동 불탑의 구체적 편년과 조탑 특징에 대하여는 신용철, 「경북 안동지역 佛塔의 편년과 특징」, 『한국민족문화』 34집(2009. 7, pp. 91-118) 참조.



도 7 봉림사지 삼층석탑,  
10세기,  
현재높이 3.35m  
도 8 임하동 동삼층석탑,  
10세기,  
현재높이 3.8m



도 9 안동 지역 석탑 문비. (상단 향좌측부터 옥동 삼층석탑, 죽진동 삼층석탑, 임하동 오층석탑, 하리동 삼층석탑. 하단 향좌측부터 임하동 동 삼층석탑, 봉림사지 삼층석탑, 봉정사 삼층석탑, 안기동 삼층석탑)

사 오층석탑(1023), 칠곡 정도사지 오층석탑(1031)의 同形의 문비와 자물쇠의 형상이 임하동석탑, 봉림사지 삼층석탑, 봉정사 삼층석탑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각 부분의 생략과 간략화, 문비의 형상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안동 석탑의 제작시기는 고려 초기인 10세기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제비원 석불에 위치한 이천동 석탑은 형태상 가장 소형이며 간략화된 형태를 지닌 점에서 고려 중기에 건립된 석탑으로 파악된다(표 1).

표 1 안동 불탑 현황 및 편년

구분	탑명	층수	기단부 특징	탑신부 특징	편년	비고
전탑	신세동 전탑	7층	기단부 19구의 신장상	초층 감실	9세기 초 (기단 신장상)	
	동부동 전탑	5층		초층 감실, 2층 금강역사	9세기 중반	
	조탑동 전탑	5층		초층 인왕상 및 감실, 문양전 사용	9세기 중반	
	입하사지 전탑	7층			9세기 중반 (사리구로 추정)	원 7층, 유실, 사리장엄구 출토
	금계동 전탑	7층 (?)			9세기 말	7층 추정, 현 1층만 잔존
	옥산사지 전탑					원 5층, 유실
	개목산 전탑					유실
석탑	옥동 석탑	3층	이중 기단	초층 문비	9세기 중반 이후	
	안기동 석탑	3층	단층 기단	초층 감실	10-11세기	
	이천동 석탑	3층	단층 기단		12세기 이후	
	하리동 모전석탑	3층	단층 기단		10세기	석탑형 모전석탑
	하리동 석탑	3층	단층 기단	초층 문비, 초층 탑신 및 2층 탑신 상하 2매석	10세기	
	죽전동 석탑	3층	이중 기단	초층 문비	10세기	
	막곡동 석탑	3층	이중 기단		10세기	
	모운사 석탑	3층	단층 기단(?) 상층 갑석 이하 유실	초층 문비 (자물쇠 모각) 2층, 3층 탑신 유실	고려	
	연화사 석탑	5층 (?)	하층 기단 유실	3층, 4층, 5층 옥개유 실	고려	
	봉림사지 석탑	3층	이중 기단, 하층 안상	초층 문비 (자물쇠 모각)	10세기	
	봉정사 석탑	3층	이중 기단	초층 문비 (자물쇠 모각)	10세기	
	석탑리 방단형 적석탑	미상			미상	전탑형 모전석탑
	남양사지 석탑	3층	이중 기단		10세기	

나소동 석탑	3층	단층 기단	초층 문비 (자물쇠 모각)	10-11세기	
대사동 모전석탑	미상	암반 기단		고려	전탑형 모전석탑
임하동 십이지석탑	3층	이중 기단, 하층 십이지, 상층 신장상		9세기 말	
임하동 동 석탑	3층	이중 기단	초층 문비(자물쇠, 고리 모각), 2층 3층 탑신 탱주 모각	10세기	
임하동 오층석탑	5층	이중 기단	초층 문비, 2층 이상 탱주 모각	10세기	
임하동 중앙 석탑	3층	이중 기단	2층 탑신 탱주 모각	10세기	

### III. 『永嘉誌』를 통해 본 안동 불탑의 성격

#### 1. 『永嘉誌』의 불탑 관련 기사와 성격

『永嘉誌』는 柳成龍(1542-1607)이 편찬요목을 지시하여 안동부사 鄭述(1543-1620)의 후원 아래 權紀(1546-1624)와 안동 유생들의 참여로 1608년(선조 41)에 편찬된 안동부의邑誌이다. 원래 필사본으로 전승되다가 1899년 權相鶴 등에 의해 재간행된 후 판각되어 현재에 전하고 있다. 『영가지』의 서문에도 밝힌 바 永嘉는 안동의 옛 이름으로, 永은 二水의 合字로 ‘두 물결이 만난다’는 의미가 있고, 嘉는 ‘아름답다’는 의미로 낙동강과 반변천이 만나 합수되는 안동의 지세를 일컫는 말이다. 이 책은 안동 본부를 포함한 각 현의 상세한 지도와 함께 풍부하고 구체적인 안동의 지형, 풍물, 고적, 인물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당시 지역민이 가졌던 안동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영가지』에서 눈에 띄는 점은 古蹟條와 佛宇條에 소개되어 있는 사찰의 수와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방지에서도 고적과 불우에 사찰이 기술되어 있으나 『영가지』에는 68개의 사찰과 41개의 절터 등 그 내용이 풍부하다. 게다가 다른 지리지나 지방지에서는 찾기 힘든 古塔條에는 당시 안동 지역에 산재되어 있던 탑에 대한 재질, 소재지, 조탑 이유, 수리 사실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유교문화의 중심지인 안동 지역 유생들에 의해서 편찬되었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이례적이다.

표 2 『영가지』에 나타난 불탑 현황

구분	탑명	층수	재질	소재지	조탑이유	비고
古蹟條	富泉寺塔	5층	석탑	안기역 남	設塔以鎮	
	永興寺塔		석탑	임하현 서쪽 2리		
	長安寺塔		석탑	풍산현 남쪽 花山		
	化人寺塔		석탑	풍산현 남쪽 圭峰		
	岳心寺塔		석탑	풍산현 북쪽 懸空山		
	安養寺塔		석탑	내성현 남쪽 5리		현 봉화
佛宇條	城山寺塔		석탑	안동부 서쪽 15리 靑城山	水口裨補	
	鷲棲寺塔		석탑	皆丹部曲 북쪽 5리 鴨丘村 북쪽		현 봉화
古塔條	法興寺輓塔	7층	전탑	府城 동쪽 5리	本府 大裨補	1487년 중수
	法林寺輓塔	7층	전탑	府城 남문 밖	本府 大裨補	1598년 상륜 철거
	臨河寺輓塔	7층	전탑	부의 서쪽 8리	本府 大裨補	1487년 중수, 1576년 훼손
	別尾洞塔			부 동쪽 陟麻 동편		
	富泉石塔	5층	석탑	안기역 서쪽	本府 大裨補	고적조 富泉寺塔과 同
	林皮寺塔	5층	석탑	안기역 서쪽		현 봉화
	月川輓塔	5층	전탑	襄川驛 남쪽 玉山		
	圓堂塔			임하현 서쪽		
	柏桂塔			임하현 서쪽		
	勝先塔			임하현 남쪽		
	一直三塔		석탑 2 전탑 1	현 서쪽 2리		
	下里塔			풍산현 남쪽 2리		
	佛空塔			풍산현 서남쪽 200보		
	院空塔			풍산현 남쪽 3리		
	禪院寺塔			甘泉縣 동쪽 1리		현 예천
	彌屹寺塔			감천현 서쪽 7리		현 예천
	春陽石塔		석탑 2	현 북쪽 3리		현 춘양

『영가지』에 소개된 불탑은 고적, 불우, 고탑조에 나누어져 있는데, 고적조와 고탑조에 중복된 富泉寺 塔 하나를 빼고 一直 三塔의 2기, 春陽 雙塔 1기를 추가하면 총 27기의 탑이 소개되어 있다(표 2).<sup>12</sup> 탑이 있었던 사찰을 살펴보면, 법흥사와 법림사는 3칸만 잔존하는데, 土佛 3구와 흙으로 만든 코끼리상, 사자상 각각 1구씩 전해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17세기 초에는 양 사찰이 법당 1동만이 남아 있을 만큼 쇠락한 상태였고 임하사는 이미 폐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이 밖에 대부분의 사찰도 쇠락했거나 폐사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데, 城山寺, 佛堂寺 등 여러 사찰에 언급되어 있듯이 임진왜란 중에 소실된 절들이 많다.

재질별로는 전탑으로 명기된 탑이 法興寺 博塔, 法林寺 博塔, 臨河寺 博塔, 月川 博塔, 一直 三塔 중 1기 등 5기이다. 석탑의 경우 富泉 石塔을 포함한 13기의 재질이 석탑이라 기록되어 있는 반면 재질이 명기되지 않은 탑은 別尾洞 塔, 圓堂 塔, 柏桂 塔 등 9기이다. 그러나 『영가지』의 내용은 물론이요 목탑의 존재는 다른 기록이나 유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재질이 언급되지 않은 탑은 석탑으로 볼 수 있다.<sup>14</sup>

『영가지』에 설명하고 있는 建塔 이유는 안동 불탑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古塔條의 5기 탑은 大禪補塔이 4기, 水口禪補塔이 1기로 소개되어 있다. 즉 안동 불탑은 건탑을 통하여 지역의 地勢, 水勢 등을 누르고 보완하려는 현세 이익적 목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 남아 있는 안동 지역 탑의 위치나 조성시기 등을 살펴보면, 『영가지』에 소개된 것 이외의 다수의 탑이 이 같은 목적으로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영가지』는 현재 남아 있는 어느 지리지나 지방지보다도 압도적으로 다수의 불탑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세한 위치와 건탑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당시 안동 사람들이 불탑에 대하여 가졌던 관심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유교의 중심지인 안동에서 이처럼 많은 불탑을 자세히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지역 민이 안동 불탑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영가지』의 寺塔 관련 기사에서 유심히 봐야할 것은 안동 지역 다수의 비보사찰과 비보탑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비보사찰로 언급된 9개소를 비보목적에 따라 살펴보

12 본 표에서의 탑 명칭, 층수, 재질, 소재지는 『영가지』 기록에 따른 것임.

13 『永嘉誌』 卷6, 古蹟條. “臨河寺 在府西七里許……今廢” “法林寺 府城南今只有三間 有土佛三土象土獅子各一” “法興寺 府東三里今只有三間”

14 『영가지』의 불탑 가운데 전탑은 현재 유존하는 전탑과 전탑지를 통해 위치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석탑은 현재 탑이 남아 있는 축서사와 봉화군 춘양면 서동리 쌍탑을 제외하면 좀처럼 현재 남아 있는 탑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영가지』에 소개된 석탑과 유존 석탑과의 위치 추정은 금후 고찰할 필요가 있다.

표 3 『영가지』에 소개된 비보사찰과 비보목적

비보목적	사찰명	비보내용	부에서 위치
地勢裨補	臨河寺	白虎山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사찰로 눌러 떠내러가지 못하도록 함	서쪽 7리
	石增寺	府터의 艮山이 동쪽으로 달리는 것을 누름	영남산 뒤
	五百寺	나한불 500구가 있어 서방을 누름	서쪽 5리
	太陽寺	태양산은 太陰이 있는 자리로 절로서 음기를 누름	서쪽 2리
水口裨補	城山寺	임하사, 성산사, 마라사가 모두 부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곳을 지키는 비보사찰	서쪽 15리
	馬螺寺		
方鎮裨補	斗星寺	方鎮의 비보사찰	부의 자리인 백호산
	西岳寺	方鎮의 비보사찰	서쪽 5리
疾病裨補	開目寺	본부 읍내에 장님이 많이 살았는데 절을 짓고 비보사찰로 삼은 후 눈병이 없어짐	서쪽 30리

면, ① 지형이나 방위를 비보하는 地勢裨補 사찰로 임하사, 석증사, 오백사, 태양사가 있고 ② 물과 관련된 水口裨補<sup>15</sup> 사찰로 성산사, 마라사가 있다. ③ 허한 지세를 누르기 위한 方鎮裨補는 두성사와 서악사가 있으며 ④ 疾病裨補를 위한 개목사가 있다(표 3).

다음으로 『영가지』의 비보담을 살펴보자. 古塔條에 범홍사 전담, 범림사 전담, 임하사 전담, 부친 석담은 本府 大裨補로, 佛宇條에 城山寺 石塔은 水勢裨補로, 古跡條에 다시 등장하는 부친 석담은 方鎮裨補로도 언급된다.<sup>16</sup>

안동의 비보사담에 나타난 비보목적을 보면 안동의 지형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안동부를 중심으로 동북쪽에서 흘러 들어온 낙동강이 안동 중심부에 이르러 반반천과 합류하여 흐르다가 서쪽에서 안동부 쪽으로 한 바퀴 돌아 흘러 송야천과 만난 후 서쪽으로 흘러간다. 그런데 동쪽과 북쪽, 낙동강 건너 남쪽은 鎭山으로 둘러 쌓여 있는 반면, 서쪽은 진산이 없는데다가 낙동강을 통해 물이 빠지는 형국을 하고 있어 서쪽에 대한 비보가

<sup>15</sup> 물이 흡수하는 지점을 水口라고 하는데, 풍수설에서는 이 수구가 잠기지 않고 열려 있으면 기운이 빠져나가 흉하다고 한다. 또한 큰물이 나면 수구에서 물이 역류하여 범람하게 되어 수구는 항상 경계를 요하는 비보처로 알려져 있다. 최원석, 『우리땅 풍수기행』(시공사, 2000), p. 122.

<sup>16</sup> 『영가지』에 따르면, 안동의 지세를 보완하기 위해 비보담 이외에 연못, 防林, 幢竿支柱, 長明燈, 大石 등 다양한 구조물을 통한 비보가 등장하고 있다.



도 10 『여지도서』에 나타난 안동의 지세 (『여지도서』, 조선(1765년) 안동 부 지도)



도 11 『영가지』의 안동 본府圖, 조선(1608년)

필연적으로 대두되었을 것이다(도 10).<sup>17</sup> 따라서 안동의 비보사탑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설정되고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즉, 첫 번째가 낙동강의 범람을 막아 府의 내부를 方鎮하고, 둘째로 상대적으로 뚫려 있는 서쪽 지역으로 드나드는 기운을 제어하고 낙동강물의 수량을 제어할 목적이다. 즉 지세와 수구비보가 가장 중요시 된 것이다.

이는 『영가지』에 언급된 비보사탑의 위치를 살펴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즉 질병을 비보하기 위해 만든 개목사를 제외하면 범홍사 전탑, 범림사 전탑, 임하사 전탑은 낙동강을 따라 위치했고 두성사 석탑, 부천사 석탑이 府의 허한 기운을 누르는 방진의 역할을 한

<sup>17</sup> 이에 대하여 『영가지』에는 安東의 지형을 行舟形(배가 가고 이는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永嘉誌』 卷2, 山川, 尊堂造山條. “府基行舟形……”



도 12 『영가지』에 언급된 대비보탑과 건탑 위치, ① 임하사 전탑지, ② 법림사 전탑, ③ 부천 석탑, ④ 법흥사 전탑 <<안동읍도>>, 18세기 말, 국립중앙도서관

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비보사탑은 부의 서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위치도 부에서 서쪽으로 태양사—서악사—오백사—임하사·석증사—성산사·마라사까지 유기적으로 중첩되어 가히 비보의 網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도 11).

여기서 검토해 볼 것이 고답조에 기재된 “本府의 大裨補”의 의미이다. 대비보의 성격은 『영가지』의 내용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대비보탑 가운데 먼저 임하사탑은 고적조에 백호산이 떠내려가는 형국을 놀랐다는 내용과 불우조에 城山寺를 언급하면서 임하사, 성산사, 마라사가 부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키는 비보사찰이라 하고 있다. 또 富泉寺 석탑은 고적조에 허한 기운을 누르는 方鎮비보라 했는데, 고답조에는 대비보탑이라 부르고 있다.<sup>18</sup> 결국 大裨補의 개념은 2가지 이상의 복합적 비보기능을 지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또 다른 본부의 대비보인 법흥사 전탑과 법림사 전탑은 각각 낙동강변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낙동강의 범람을 막는 수해비보와 허한 지세를 보강하여 지역을 보호하는 방진비보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판단된다(도 12). 현재 여주 신록사 경내 남한강변에 위치한 전탑과 삼층석탑은 일반적 탑의 위치에서 벗어나 있는데, 안동의 전탑과 지형상 상통하는 면이 많아 이 또한 비보의 목적이었을 것이다.

한편 수구비보를 담당했던 城山寺 석탑은 풍산읍 막곡리에 있는 막곡동 삼층석탑이 확실하다(도 13). 『영가지』에 성산사의 위치에 대하여 부의 서쪽 15리 靑城山에 있으며, 임진왜

<sup>18</sup> 부천사 석탑은 위치로 보아 현재 안기동 삼층석탑으로 추정된다. 특히 『영가지』의 기록에 탑 안에 석불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초층 탑신 감실 내부에 불상이 모셔져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영가지』에는 5층으로 언급되어 다소 의문이 남는다.



도 13 막곡동 삼층석탑,  
고려 초,  
현재높이 1.72m  
도 14 하리동 삼층석탑,  
고려 초,  
현재높이 4.0m

란 때에 불탔으나 小石塔이 홀로 남아 있다고 전한다. 또한 절터의 서쪽으로 金誠一의 石門精舍가 있다고 하였다.<sup>19</sup> 그런데 안동시에서 절터까지의 거리와 막곡동 삼층석탑이 있는 산의 명칭이 청성산인 점, 소석탑인 점, 탑에서 서쪽으로 커다란 바위에 石門이라는 명문과 함께 석문정사가 남아 있는 점 등에서 절의 위치를 확정할 수 있다. 성산사 석탑은 청성산 높은 비탈 벼랑 위에 위치해 있는데, 비록 소형 삼층탑에 불과하지만 자연암반을 하층기단으로 삼고 앞으로 낙동강과 송야천이 합류하는 지점이 내려다보이는 장소에 배치하여 비보탑의 전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표 4).

이 같은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재 안동 시내에 위치한 3기의 석탑 역시 방진비보의 기능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다.<sup>20</sup> 또한 유독 낙동강을 따라 형성된 석탑들이 많은데, 안동 시내를 중심으로 동쪽에 나소동 삼층석탑, 임하동에 4기의 석탑이 있고 서쪽 강변으로는 하리동 모전석탑, 하리동삼층석탑, 죽전동 삼층석탑, 모운사 석탑, 연화사 석탑 등이 있다. 특히 석탑의 분포를 참조해 보면 이들 석탑들은 낙동강변을 중심으로 한 비보기능을 수행했다고 판단된다(도 14).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영가지』에 소개된 안동 불탑의 건립 목적에는 부족한 地勢,

<sup>19</sup> 『永嘉誌』 卷6, 佛宇, 城山寺條. “在府西十五里靑城山 不知其創在何代 臨河寺城山寺馬螺寺皆府基水口禱補云 壬辰寺爲兵火所焚小石塔猶在寺基 西傍有鶴峯金誠一石門精舍詳書堂誌……(후략)”

<sup>20</sup> 이천동 삼층석탑의 경우 탑의 조탑 위치가 마애불(제비원 석불) 위 암석에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표 4 『영가지』에 소개된 비보탑

탑명	비보내용	『영가지』에서의 비보내용
富泉寺石塔	방진비보 + 지세비보	방진비보, 본부 대비보
臨河寺塼塔	지세비보 + 수구비보	지세비보, 수구비보, 본부 대비보
法興寺塼塔	수해비보 + 방진비보	본부 대비보
法林寺塼塔	수해비보 + 방진비보	본부 대비보
城山寺石塔	수구비보	수구비보

水勢를 보완하여 각종 재해를 막아내려는 공익의 개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탑의 제작시기는 대체로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집중되어 본격적으로 안동이 도시의 기능을 수행할 때부터 계획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같은 비보의 개념들은 『영가지』가 편찬되었던 조선 중기에는 이미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 중기에 안동의 불탑은 단순히 부처의 유골을 모시는 분묘보다는 지역 수호의 개념으로 인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안동 불탑과 비보사탑설

불탑은 여래의 사리를 모시는 분묘로서의 기능 이외에 불탑관의 변화에 따른 내적 의미도 변화하였다. 삼국기 신라에서는 탑의 본래 기능과 아울러 탑이 국가를 지켜준다는 호국적 불탑관이 강하였다. 8세기에 이르면 『무구정경』의 유입과 더불어 개인의 추복적 불탑관이 불탑 건립의 주요 동인으로 등장하였다. 그런데 통일신라기에 유행한 불탑관과 급격한 불탑의 증가는 주로 왕실과 귀족 등 개인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왕실의 쇠퇴와 더불어 새로운 불탑 건립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 같은 시대 상황에서 서서히 형성되어 새로운 불탑관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裨補寺塔說이다.

裨補寺塔說은 道詵(先覺國師, 827-898)의 사상에 근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산천의 順逆을 살펴 地德이 쇠한 곳이나 강한 곳에 사찰, 불탑, 불상, 당간 등을 세워 땅을 비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선의 『裨補記』, 『道詵密記』 등 1차 사료가 전해지지 않으며, 도선의 체계화된 비보사탑설의 전거가 되는 『高麗國師道詵傳』은 고려 말 지공의 문하인 宏演에 의해 찬술되었다.<sup>21</sup> 또한 도선 사후 약 250여 년이 지난 후 제작된 崔惟淸 撰, 「白鷄山玉龍寺贈

<sup>21</sup> 宏演 撰, 「高麗國師道詵傳」, 『朝鮮寺刹史料』 下(1911), pp. 377-379. 도선 관련 사료에 대한 검토는 梁銀容, 「道

謚先覺禪師碑銘」(1150)에서조차 도선의 비보적 성격을 찾기 힘들다. 이러한 점은 도선이 비보사탑설을 제창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회의적 근거가 된다.<sup>22</sup> 실제로 도선의 비보사탑설과 관련된 21개의 자료 가운데 무려 13개가 14세기부터 조선 말기의 기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도선은 사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비보사탑설의 인물로 부각되고 윤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상정된다.<sup>23</sup>

그런데 고려 말인 14세기 이후 여러 사찰들이 각종 문헌 및 사적기 등에서 다투어 裨補處임을 자처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하여 고려 말기 성리학이 興起하고 조정에 신흥세력이 불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불교계의 대응, 즉 護佛護法 운동의 일환으로 비보사탑설을 적극 수용하였고 이때를 즈음하여 이론이 보다 구체적으로 체계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24</sup> 특히 조선 초 사찰혁거의 폭풍 속에서도 無學大師가 사찰을 보호한 것도 비보사탑을 존치하기 위함이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25</sup> 따라서 고려 말 새로운 이론적 체계를 갖춘 비보사탑설은 신왕조의 개창 후에는 사탑을 보호하는 이념적 전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비보사탑설은 고려 말 조선 초를 거치면서 확장된 면이 있으나 기본적인 사상까지 14세기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만 정확히 언제부터 비보사상에 근거한 사탑이 건립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연원을 신라시대부터 시작되어 고려 초기에 본격화 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26</sup> 이와 관련하여 고려 초 비보사탑과 관련한 기사 가운데 첫머리에 인용되는 것이 『高麗史』, 「訓要十條」(943) 1조와 2조의 내용이다.<sup>27</sup>

說國師 裨補寺塔說의 研究」, 『先覺國師道說의 新研究』(영암군, 1988); 최원석, 「영남지방의 裨補寺塔에 관한 고찰」, 『한국사상사학』 17집(2001) 참조.

<sup>22</sup> 梁銀容, 위의 논문, pp. 195-207. 이와 관련하여 최병헌은 선종 승려로서 도선을 재조명하였으며, 선종사상에 풍수지리설이 결부되어 사회적 전환의 추진력이 되었다고 정리하였다. 崔柄憲, 「道說의 生涯와 羅末麗初의 風水地理思想」, 『韓國史研究』 11(1975).

<sup>23</sup> 梁銀容, 앞의 논문, pp. 187-190.

<sup>24</sup> 현재 남아 있는 많은 사적기를 참조하면, 많은 사찰들이 도선이 창건한 비보소임을 자칭하고 있는데, 양은용은 이를 전사원의 裨補化라고까지 칭하고 있다. 梁銀容, 앞의 논문, p. 224.

<sup>25</sup> 黃仁奎, 「無學 自超 研究」(동국대학교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pp. 171-176.

<sup>26</sup> 이에 대하여 양은용은 비보설이라는 명칭은 후대에 성립되었으며, 풍수설을 바탕으로 한 비보의 개념은 신라부터 전승되었는데, 고려의 비보사탑은 신라와는 달리 전국토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았다. 양은용, 앞의 논문, p. 221. 한편, 최원석은 삼국시대부터의 佛力에 의지한 鎮護寺塔에서 시작되어 나말여초 불력에 의한 地力 개념이 더해져 風水寺塔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원석, 앞의 논문, pp. 170-171.

<sup>27</sup> 「훈요십조」의 사료적 성격에 대하여는 왕건의 유훈이 아니라 후대에 조작되었다는 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일제강점기 今西龍에 의해 제기된 이후 李丙燾에 의한 비판이 있었다. 今西龍은 『高麗史』, 崔

- a. 첫 번째, 우리나라의 대업은 반드시 여러 부처님의 護衛에 힘입은 것이다.
- b. 두 번째, 모든 사원은 모두 道誥의 산수의 順逆을 推占하여 개창한 것이다. 도선이 말하기를 “내가 정한 곳 이외에 함부로 더 절을 창건하면 지덕을 훼손하여 祚業이 길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짐은 후세의 國王, 公侯, 后妃, 朝臣들이 각각 願堂이라 칭하고 혹 더 창건한다면 크게 우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신라 말에 답을 다투어 지어 지덕을 衰損시켜 망하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경계하지 않을 것이냐.<sup>28</sup>

훈요의 내용에서는 우선 고려의 창업과 통일이 여러 부처의 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숭상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사찰을 창건할 때는 도선이 제시한 비보사탑설에 따라 창건하며, 왕실 귀족이라 할지라도 비보사사 이외 사사로운 願刹 건립을 경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裨補寺社 외 사원 건립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비보사사의 도안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sup>29</sup> 사원 건립의 근본 원칙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고려사』에 나타난 비보사탑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sup>30</sup> 文宗代에는 비보사사의 창건과 이에 따른 백성들의 노역으로 폐해가 발생되었으나 왕이 받아드리지 않았고, 毅宗代에는 나라에서 개창한 비보사사 가운데 퇴락한 곳을 중수하라고 했으며, 무신집권기에는 비보사사를 제외한 사찰을 남겨두지 말자고 했다. 또한 忠烈王代에는 비보사사를 중수하도록 명했으며, 忠宣王代에는 비보사사 외 새로운 사찰의 창건을 금하였고, 고려 마지막 왕인 恭讓王代에도 태조의 유훈에 따라 비보사사 외 사찰을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sup>31</sup>

---

承老傳에 언급된 기록을 근거로 거란의 침입기인 현종 2년(1011)에 발견된 점과 모든 사원이 도선의 이론에 따라 세워졌다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에 주목하여 후대 조각설을 제기하였다. 今西龍, 『高麗史研究』(近澤書店, 1944), pp. 45-61. 이에 대하여 李丙燾는 이마니시류의 설을 비판하고 태조가 후왕에게 전한 유훈임을 강조하였다. 李丙燾, 『高麗時代의 研究』, 韓國文化叢書 4輯(乙酉文化社, 1948), pp. 33-48. 「훈요십조」가 태조의 유훈이었는지 아니면 후대에 첨가된 내용인지 필자의 역량 밖이나 적어도 고려시대 국가에 의해 주도된 비보사탑설을 이해하는 데는 중요한 사료임에는 틀림없다고 본다. 「훈요십조」에 최근 연구로는 金箕寧, 「高麗太祖 訓要十條의 再考察」, 『佛教研究』 19(2003).

<sup>28</sup> 『高麗史』 世家 卷2, 太祖26年 4月條. “其一曰 我國家大業必資諸佛護衛之力……(중략)……其二曰 諸寺院皆道誥推占山水順逆而開創 道誥云 吾所占定外妄加創造則損薄地德祚業不永 朕念後世國王公侯后妃朝臣各稱願堂或增創造則大可憂也 新羅之末競造浮屠衰損地德以底於亡可不戒哉”

<sup>29</sup> 「常住寶記」, 『無衣子詩集』 卷下(『韓國佛教全書』 6冊, 東國大出版社, 1984), p. 65. “予曰凡寺院者無非爲國朝及州縣裨補所置也” 『龍飛御天歌』 107, 世註(亞細亞文化社, 1972), p. 1023. “高麗用道誥之說 推占山川順逆 開創寺社”

<sup>30</sup> 고려시대 裨補寺社의 설정과 변천에 대하여는 황인규, 「고려 裨補寺社의 설정과 村莊의 운영」, 『동국역사교육』 6(1998) 참조.

결과적으로 참서 등의 유포로 14세기 이후 비보사탑설이 확장된 면이 있지만 도선이라는 역사적 인물과 연관성을 떠나서 비보사탑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고려시대에 지속된 도선에 대한 追贈과 碑銘의 건립이다. 현종대(1009-1031)에 大禪師, 숙종대(1095-1105) 王師, 인종대(1123-1145) 先覺國師로 추증이 이루어지고, 예종 4년(1150) 왕명에 의해 최유청의 찬술이 이루어지고 명종 2년(1172) 비가 건립된다. 이를 통해 고려 왕실에 의해 의도적으로 도선을 비보사탑설의 선구자로 인식시켰을 가능성도 있다.<sup>32</sup>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도선과 비보사탑설의 관계를 모두 설명해주지는 못하고 있으며, 본고의 목적도 도선과 비보사탑설의 연관성을 고찰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안동의 불탑은 이처럼 문헌적으로 부족한 비보사탑의 성립과 전승의 문제를 실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안동 불탑의 비보적 개념은 언제 성립되었을까. 첫째, 실제 건립 위치확인과 편년을 통하여 나타난 불탑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탑들이 비보적 개념으로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낙동강변에 다수의 탑이 집중되어 있는 점 등은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다. 고려시대의 안동 불탑의 전승과정을 확인할 수 없지만, 1986년 긴급 발굴된 임하사 전탑지에서 고려시대의 대표적 와당인 鬼目文圓瓦當과 平瓦當이 다수 발견되어 수리시기를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sup>33</sup> 둘째, 어느 시기인가 비보적 개념이 더욱 확고화 되어 비보사탑의 내용이 깊이 뿌리내렸고, 결국 『영가지』에 비보사탑에 대한 내용이 다수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 말 흥건적의 침입을 맞아 안동으로 몽진했던 공민왕의 환도 후 적극적인 후원으로 사탑이 중수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34</sup> 특히 비보사탑의 역할에 대하여 언급한 공민왕대의 기록을 참고하면, 비보사탑의 존재가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었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sup>35</sup> 다시 말하면 비보사탑의 이념적 체계가 확고히 되는 시기에 안동 역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조선시대로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31 『高麗史』世家 卷7, 文宗9年 10月 丙申條; 이하 『高麗史』世家 卷18, 毅宗22年 3月 戊子條; 卷129, 列傳42, 叛逆 3, 崔忠獻條; 卷107, 列傳20, 韓康條; 卷84, 志38, 刑法1, 職制, 是年正月忠宣王即位下教曰條; 世家 卷38, 恭讓王 1年 2月 丙子條.

32 梁銀容, 앞의 논문, p. 230.

33 『臨河寺塔址』(안동대학교 박물관, 1988), pp. 45-49.

34 『永嘉誌』卷6, 古跡, 恭愍王駐蹕本府時所賜條. 또한 실제로 고려 말에 안동 지역 각 사찰의 보수와 중수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봉정사의 불사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것은 김현정, 「안동 봉정사 대웅전 중창과 후불벽화 조성배경」, 『상명사학』 8·9합집(2003) 참조.

35 『高麗史』世家 卷38, 恭愍王1年 壬辰元年 “祖王代創置禪教寺院 所以裨補地德 以利國家”

결과적으로 안동의 불탑은 문헌적으로 부족한 비보사탑의 성립과정을 보여줌과 동시에 고려 말 비보사탑의 이론이 체계화 되면서 더욱 확고화 되어 전승되었음을 실물을 통해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는 안동 지방의 지세를 극복하여 작게는 지역의 이익, 포괄적으로는 국가의 이익을 앞세우는 공익적 불탑관 형성의 한 예를 보여준다.

## IV. 불탑의 전승과 안동민의 인식

### 1. 안동 전탑집중설의 문제

안동 지역 탑을 언급할 때 가장 먼저 전탑의 존재를 떠올리는데 누구도 주저하지 않을 만큼 전탑은 안동 탑파의 가장 큰 특징이다. 따라서 안동은 전탑의 고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한국탑파 연구의 선구자인 고유섭 선생의 지적<sup>36</sup> 이후 일찍부터 안동에 전탑이 집중된 이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다각도의 접근이 시도되었다. 지금까지 안동 전탑집중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있었다.

첫 번째 안동 지역의 지질의 이유를 들어 화강암 석탑 건립이 어렵다는 의견이다.<sup>37</sup> 그러나 안동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경주를 제외한 가장 많은 석탑이 분포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 같은 의견은 본질적으로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 안동을 포함한 부석사 등 경북 북부 지역에 의상을 위시한 특정 종파의 유학승들이 지역의 사찰을 창건할 때 중국의 전탑술을 익힌 장인이 도래하여 제작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sup>38</sup> 그러나 종파에 따른 탑형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혹은 도래인들에 의한 조탑이 있었는지 문헌이나 자료를 통한 실체적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설은 단지 가설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sup>39</sup>

<sup>36</sup> 高裕燮, 「朝鮮의 塔塔에 대하여」, 『高裕燮全集』 3(通文館, 1993), p. 124.

<sup>37</sup> 金鉉坡, 『寺刹 그 속에 깃든 의미』(教保文庫, 1992), p. 144.

<sup>38</sup> 경주의 전탑군과 안동의 전탑군이 크기와 벽돌의 형태, 편년 등을 검토하여, 경주의 전탑은 7세기 전반 귀국한 유학승들에 의해, 안동의 전탑은 8세기 초 귀국한 유학승들에 의해 다른 환경에서 건립되었다는 설이 있다. 임세권, 「한국 전탑의 전래와 변천과정」, 『미술사학연구』 242·243(2004). 그러나 비보사탑설을 유포한 道誥이 桐裏山門 계열의 禪僧인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9세기 이후 중국을 유학하고 돌아온 선승들에 의해 안동의 전탑이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sup>39</sup> 안동의 전탑을 8세기 이후 華嚴宗派와 연관하여 건립 배경, 화엄사찰 배치의 특수성 등으로 접근한 글은 고한

세 번째로 전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전탑은 안동만의 산물이 아니고 경주, 청도, 칠곡, 경기 일부지방에도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리를 해주어야 유존한다는 전탑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영가지』에 나타난 수리기록 등에서 안동 지역은 수리를 해주었고 남아있지 않은 다른 지역은 반대로 수리를 하지 못한 결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sup>40</sup> 그러나 왜 수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적 고찰은 언급되지 않았다.

대체로 지금까지 제시된 의견은 성립의 문제에 집중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필자는 안동 전탑집중설은 성립의 문제와 함께 전승이라는 결과론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탑은 탑의 재질상 석탑보다는 수명이 짧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낙동강변에 7층의 고층 전탑들이 왜 필요했는가라는 점과 어떻게 전승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에 먼저 검토할 점은 왜 전탑으로 건립했는가라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낙동강변에 위치한 3기의 전탑은 공통적으로 7층이라는 점과 모두 안동 지역 수호를 위한 비보탑으로 성립되었다. 현재 사라진 임하사 전탑을 제외하고 유존하는 신세동 전탑, 동부동 전탑은 그 동안 많은 수리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초창연대를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3기의 탑은 동시대에 동일한 의도와 동일 기술로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먼저 전돌이라는 재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석탑의 경우 재질상 단단하여 영구히 불사리를 모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초기 석탑을 제외하고 시대의 하강에 따라 조탑술이 쇠퇴하면서 9세기경에는 기단부를 판석으로만 결구하고 탑신과 옥개를 각각 1개의 돌로 쌓아 올리는 높이가 5m 이내의 소형석탑이 주류를 이룬다.<sup>41</sup> 따라서 9세기의 기술로 높이가 10m 이상의 대형탑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 전탑은 동일한 크기의 벽돌만 구워낸다면 얼마든지 점유면적과 높이의 조절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결국 안동의 전탑은 당대에 석탑으로 구현할 수 없는 대형탑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전탑은 하나하나의 벽돌을 쌓아 올리는 건탑의 특수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탑을 쌓는다는 행위가 공덕을 積聚한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전탑은 많은 벽돌을 높이 쌓아 올려 대형의 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무한적취의 공덕을 쌓는다는 의미에 적합한 탑형이다.

현재 전탑과 연관된 사원들이 사라져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7층을 유지하고 있는

덕, 「안동지역의 전탑 연구」(안동대학교대학원 동양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pp. 51-65 참조.

<sup>40</sup> 박홍국, 『한국의 전탑연구』(학연문화사, 1998), pp. 105-120.

<sup>41</sup> 申龍澈, 「統一新羅 二重基壇石塔의 形式과 編年」, 『東岳美術史學』 9호(2008), pp. 219-221.



도 15 낙동강(앞)과 협소한 지세(뒤) 사이에 신세동 칠층전탑

신세동 전탑의 경우 일반적 가람의 입지에서 보면, 앞에는 낙동강, 뒤에는 산으로 둘러 쌓여 좁은 가람터임에도 불구하고 탑이 비대하다. 좁은 가람터에서도 굳이 탑을 크게 하려 했던 점은 이 탑이 건립단계부터 비보의 개념으로 건립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도 15). 결국 안동의 전탑들은 낙동강변에 위치해 지역과 수해를 비보해야 하기 때문에 소형탑보다는 대형탑의 건립이 필요했으나 석탑의 제작기술이 쇠퇴했고 여러 사람들의 참여에 의한 공덕적 취의 뜻을 담아 중량감으로 지세를 눌러야 하기 때문에, 전탑이 가장 적절한 탑형이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만한 기록이 남아 있다. 衿川縣(현-시흥)에 존재했던 安養寺 칠층전탑의 존재이다. 『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고려 태조가 세운 칠층전탑이 남아 있는데, 고려 말 李崇仁이 지은 『重新記』를 인용하여 이 탑이 고려 태조 때 세운 비보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42</sup> 여기서 安養寺塔이 전탑이라는 점, 7층이라는 점, 비보설의 의해 건립되었다는 점은 안동의 전탑을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 2. 비보탑의 전승과 안동민의 인식

안동의 비보탑들이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속속 건립된 후의 전승과정은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안동 瓶山에서 펼쳐진 견훤과 왕건의 전투에서 안동부민의 적극적 협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태조 왕건이 지역민의 충성심에 베풀고 함께 郡을 府로 승격

<sup>42</sup>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0, 衿川縣 佛宇條. “我太祖開國之初佛者有以裨補之說干之者頗用其言多置塔廟若今衿州安養寺塔其一也……”

시켰음은 익히 알려져 있다.<sup>43</sup> 또한 고려 명종, 신종 때의 모반을 안동부에서 잇따라 격퇴시킨 점 등에서 고려왕조 시기 안동에 지닌 각별한 관심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한 것이 흥건적의 침입에 안동을 임시수도로 삼고 1361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공민왕이 이곳에 몽진한 사실이다.

전국이 흥건적의 말발굽에 유린되고 있을 때 큰 계책으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大東(고려)을 회복하고 편안히 하였기 때문에 '安東'이라는 이름을 직접 하사하고 大都護府로 승격시켜 영남의 우두머리로 삼은 사실과 공민왕이 직접 많은 양의 금은보화를 안동부에 내린 점<sup>44</sup>에서 안동 지역의 사탑수리는 국가와 관청의 주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영가지』 古塔條에 언급된 다음과 같은 조선 초기 비보탑의 수리 사례는 이 같은 전통이 이어져온 결과로 생각된다.

- a. 成化 丁未年(1487)에 改築하였다. (法興寺輓塔條)
- b. 成化 丁未年(1487)에 吏民의 合力하여 改築하였다. (臨河寺輓塔條)
- c. 중간에 무너져 縣의 사람이 기술사로 重創하였다. (佛空塔條)

이상 3건의 불탑 수리기록에서 기록의 내용으로 보아 범흥사 전탑과 임하사 전탑은 동일시기에 동일방법으로 수리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관리와 백성이 함께 힘을 합력하여 수리했다는 점이다. 또한 불공탑 역시 豊山縣의 관리 주도로 탑을 수리하였다. 이는 유교를 국시로 하는 조선사회에서 더구나 유교문화의 중심지인 안동에서 일어났다고 믿기 어려운 기사로 인식하기 쉽지만 그만큼 조선 초기까지 안동의 불탑은 官民 모두의 관심 속에 있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대목이다. 동시에 고려시대부터 이어져온 비보사탑 수리의 전통이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안동 관민은 인근의 불탑을 신앙대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지역을 지켜주는 수호물로 인식했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李股(생몰년 미상)에 의한 범흥사 전탑 상륜의 훼손 사건이다(도 16).

위에는 금동 장식이 있었다. 李股가 철거하여 관청에 냈는데 녹여서 客舍에 사용하는 집기로 만들었다.<sup>45</sup>

<sup>43</sup> 『永嘉誌』 卷1, 沿革條 참조.

<sup>44</sup> 『永嘉誌』 卷6, 古跡, 恭愍王駐蹕本府時所賜條.

李股는 현재 신세동 전탑(법흥사전탑) 뒤편에 위치한 臨淸閣(1520년 건립)을 건립한 李洸의 다섯째 아들로 청풍군수를 역임한 후 안동으로 돌아와 留鄕所 座首를 지냈다. 좌수시절 그는 品官과 座目을 바로 잡았는데 『영가지』가 쓰여진 1608년에도 이고가 정한 규칙을 따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sup>46</sup> 따라서 이고는 당시 안동 향 반사회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지닌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고의 생몰년이나 신세동 전탑의 상륜 훼손이 정확히 언제였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1552년 4월에서 1553년 11월까지 청풍군수를 역임하였고<sup>47</sup> 안동 留鄕所 座首를 지낸 것은 그 이후로 보인다. 그런데 아버지였던 이명이 이고를 분가시킬 때 받은 蘇湖軒(보물 475호)을 무남독녀였던 딸을 시집보낼 때인 1553년 사위 徐懈



도 16 신세동 칠층전탑, 통일신라, 현재높이 14.6m

(1537-1559)에게 다시 준 사실이 있다.<sup>48</sup> 그렇다면 이고의 신세동 전탑 상륜의 훼손 시점은 청풍군수에서 물러나 소호현을 물려주고 임청각으로 돌아온 1553년 11월 이후일 것이다.

문제는 이고가 왜 신세동 전탑의 상륜만을 철거했는가라는 점이다. 할아버지인 李增(1419-1480) 때부터 명문 집안이었던 고성 이씨의 종택을 법흥사터에 지으면서 바로 집 앞을 가로막는 칠층전탑을 철거하지 않은 점은 의아한 대목이다. 그러나 임청각을 지은 李洸(호 臨淸閣)은 塔洞宗派의 시조가 되었고 종파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탑이 안동에서 지나는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 동쪽에 있던 伴鷗亭에 대한 시에서 李股가 “높은 집을 지어 강 머리를 눌렀다”라고 한 대목은 비보사상에 대한 거의 인식을 드러내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sup>49</sup> 따라서 이고는 탑 상륜만을 철거하여 관청에 바치는 것으로 안동 座首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고 결국은 이 탑을 지켜내고자 했던 행동이었을 가능성

<sup>45</sup> 『永嘉志』卷6 古塔, 法興寺輓塔條. “上有金銅之飾 李股撤而納官鑄成客舍所用什物”

<sup>46</sup> 『永嘉志』卷7 人物, 李股條 참조.

<sup>47</sup> 『提川市誌』下卷(提川市誌編纂委員會, 2004), p. 649.

<sup>48</sup> 徐懈는 23살의 짧은 나이로 단명하였고 그와 이고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徐涪(1558-1631)은 선조대에서 인조대까지 주요 관직을 두루 거친 문인으로 이름을 날렸다.

<sup>49</sup> 『永嘉志』卷3 樓亭, 伴鷗亭條. “在歸來亭東……李股詩 經營高閣壓江頭……”



도 17 임하사 전탑지(『臨河寺塔址』, p. 141)

이 크다.

그런데 이후 梁喜에 의해 자행된 임하사 전탑(도 17)의 毀撤 사건은 안동민이 가졌던 비보탑에 대한 인식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다.

萬曆 丙子年(1576) 府使 梁喜가 파손하여 벽돌을 취하여 그 벽돌을 객숙 내의 大廳에 깔았다.<sup>50</sup>

梁喜(1515-1581)는 임하사 전탑을 훼손하기 2년 전인 1574년 안동부사로 임명되었다. 그는 당시 盧禎, 李後白과 함께 영남의 三傑로 불리었던 철저한 유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런 그가 안동부사로 임명되어 당시 안동부 내에 존재했던 불교 상징물

의 대표인 불탑에 반감을 가졌고 이를 순차적으로 파괴할 계획 아래 희생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임하사 전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추정은 그가 탑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서 객사 대청에 깔아 객사를 오가는 사람들이 밟도록 해 불탑에 대한 최대의 치욕을 주려한 점에서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임하사 전탑 훼손 이후 안동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다. 1576년 2월에 안동 府城 내에 있던 觀風樓가 이유를 알 수 없는 화재로 전소된다. 관풍루는 안동의 번영을 상징하는 누정으로 원래 德民樓라는 이름이었으나 1471년 화재로 소실된 이후 1473년 부사 孫昭가 안동의 더위를 이겨 맑은 정신으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觀風이라 이름 지은 상징적 건물이었다.<sup>51</sup> 재앙은 여기에 끝나지 않고 3월에는 府內 臨河縣 上宿村에서 賊子の 獄이 일어났다. 여기서 말하는 賊子란 “부모를 죽이는 불효”를 말하는 것으로, 臨河縣 上宿村에 사는 申福이란 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을 말한다. 忠과 孝를 국가의 근본으로 삼는 조선에서 이 사건의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더구나 유교의 본

<sup>50</sup> 『永嘉志』 卷6 古塔, 臨河寺塔條. “萬曆丙子府使梁喜毀破取基博鋪于客舍內外大廳” 이때 府使 梁喜에 의한 임하사탑의 毀撤이 몇 월에 있었는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2월 觀風樓 화재사건과 3월 賊子の 獄으로 곧바로 파괴된 것으로 미루어 丙子年 正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sup>51</sup> 『永嘉志』 卷6 樓亭, 觀風樓條 참조.

고장이자 柳成龍과 같은 대학자의 생존시기에 일어난 이 같은 참사는 당시 안동민에게는 대재앙에 가까운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이 사건은 곧 중앙정부에 알려져 크게 노한 선조는 그 책임을 물어 府使 梁喜와 判官 朱德元을 파직하고 安東府를 縣으로 강등하는 조치를 내렸다.<sup>52</sup>

이 사건 이전까지 국가의 인정 속에 승승장구하던 안동이 적자의 옥으로 일개 縣으로 강등되었고 여러 유생의 復號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죽인 지역으로 낙인찍혀 6년간 치욕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결국 1581년 안동 유생들이 협력하여 柳雲龍(1539-1601)이 疏를 짓고 安夢說과 李庭會가 상소를 올렸다. 이 상소에서는 고려 초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안동민이 국가에 충성한 전력과 眞寶縣과 密陽府가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5년 만에 복호된 전력을 들어 안동부의 복호를 간청하였고, 이 간청이 받아들여져 복호되기에 이르렀다.<sup>53</sup> 이때 현으로 강등된 6년간 안동민이 가졌던 치욕에 대하여 상소에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한민 모두와 사물이 오래토록 더러움에 빠져 아직도 깨끗이 씻어낼 수가 없으니 분하고 부끄럽기가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입니다.<sup>54</sup>

이 같은 안동의 비극에서 조선시대에 광범위하게 신앙시 된 비보 관련 문헌 중 비보가 賊子를 방지한다는 내용<sup>55</sup>과 비보를 믿지 않고 사탐을 훼손하면 나라가 망하고 백성에게 재앙이 일어난다는 예언<sup>56</sup>이 있다. 지역사회의 불행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고 믿는 시대에 당시 안동민은 이 같은 재앙이 비보사탐의 훼손에 기인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영가지』는 서문에도 밝히고 있지만 유성룡의 권유로 權紀에 의해 책의 편찬이 시작되었고, 이 같은 사건을 30대 초반에 경험한 그가 체험적 입장에서 안동의 풍물과 산천의 내용과 함께 역대 어느 지방이에도 찾아 볼 수 없는 비보사탐의 내용을 세밀하게 기록했다고 판

52 『永嘉志』 卷6 任官, 府使梁喜條. “通政萬曆甲戌赴 丙子二月觀風樓火 三月臨河縣上宿村有賊子之獄 降本府爲縣 監 與判官朱德元拜罷”

53 「請安東復號疏」, 『謙菴先生文集』(『韓國歷代文集叢書』 1201(景仁文化社, 1995)), pp. 56-62.

54 앞의 책, p. 56. “一鄉民物久淪於玷汙之中而未能洗濯且奮且恥如不自容……”

55 『東師列傳』 卷1, 道誥國師傳條. “隱山碑略曰……若缺者補之 過者抑之 走者止之 背者招之 賊子防之 爭者禁之 善者樹之 吉者揚之 觀其痛痒之地勢 或豎浮屠 或設塔建寺 至於三千八百餘所 汝國山川病咎 無不潛伏 此禱補之說 所以爲療病而作也.”

56 宏演 撰, 「高麗國師道誥傳」, 『朝鮮寺刹史料』 下(1911), p. 378. “不信禱補 破佛刹則國破民死亦必矣”



도 18 동부동 오층전탑, 통일신라,  
현재높이 8.35m

단된다. 따라서 이후 유생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반백성들에게도 안동 지역의 비보사탑은 결코 훼손할 수 없는 패러다임으로 다시 한 번 각인시킨 사건이라 볼 수 있다.

문헌상 비보사탑설의 확대와 체계화는 고려왕조 말에 들어서 시작되었으나 실제 유물로 살펴보면 나말여초 시기에 시작되어 지속되었다. 그런데 안동 지역은 이 같은 비보사탑의 성립과 전승과정을 살피는 데 좋은 예가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때 안동부사의 무모한 시도로 大禪補였던 임하사 전탑이 훼손되는 수난을 겪기도 하지만 이는 전대미문의 대재앙을 불러왔고, 이후 다시 비보사탑의 보호에 힘써 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점의 명분을 제시했다(도 18).

## V. 맺음말

삼국시대부터 탑은 예배의 대상이자 동시에 국가를 지켜주는 호국의 구심체로 인식하게 되었고, 통일신라시대에는 개인의 추복과 극락왕생을 비는 대상체로서의 인식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신라 말기부터 고려 초기에 이르러 탑이 가진 관념은 변화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비보사탑설이다. 안동의 불탑은 성립 이후 전승까지 이 같은 탑신앙의 변천과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물론 안동의 탑, 나아가 신라 말 고려 초에 건립된 탑 모두를 비보탑으로 볼 수 없다. 특히 고려 초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불탑만큼 여러 조탑 행위가 있었고, 원탑이 여전히 건립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신라가 해체되고 고려가 건국하던 혼란기를 맞아 불탑관의 변화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비보사탑설이었다. 지역의 지세나 수세를 따져 핵심적 장소에 탑을 세우면 탑이 신통력을 발휘하여 그 땅을 다스리고 결국 공공의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으로 본고에서는 안동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 같은 불탑관의 성립과 전승과정을 살펴보았다.

오늘날 안동은 유교문화의 중심지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안동이 도시의 기능을 수행했던 시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줄곧 안동민의 정신에는 비보탑이 존재했다. 『영가지』는 현재

남아 있는 어느 지리지나 지방지보다도 압도적으로 다수의 불탑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는 점, 또한 자세한 위치와 조탑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점에서 불탑에 갖고 있던 관심을 파악할 수 있다. 『영가지』가 편찬되기 얼마 전 부사 양희에 의해 자행된 안동의 대비보탑인 임하사 전탑의 훼손과 그 이후 안동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비극적 일들은 안동민들에게 다시 한번 비보탑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사건이 되었다. 이후 안동민들은 체험적 입장에서 불탑이 단순히 불교의 상징물을 뛰어넘어 나와 고을을 지켜주는 수호체이자 동시에 모두가 지켜나가야 할 대상체로 각인되었다. 따라서 안동불탑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적되는 안동전탑 집중 설은 비보탑의 성립과 전승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주제어(key words) \_\_ 안동(Andong), 永嘉誌(Youngga-ji), 전탑(Brick Stupa), 裨補塔(Complementary Buddhist Stupa), 佛塔觀(View of Stupa)

## 참고문헌

### 1. 原典

『高麗史』

『東師列傳』

『新增東國輿地勝覽』

『永嘉誌』

『龍飛御天歌』 107, 世註, 亞細亞文化社, 1972.

『朝鮮寺刹史料』 下, 朝鮮總督府內務部地方局纂輯, 1911.

『韓國歷代文集叢書』 1201, 景仁文化社, 1995.

『韓國佛教全書』 6冊, 東國大出版部, 1984.

### 2. 단행본

今西龍, 『高麗史研究』, 近澤書店, 1944.

金鉉垞, 『寺刹 그 속에 깃든 의미』, 教保文庫, 1992.

박홍국, 『한국의 전탑연구』, 학연문화사, 1998.

李丙燾, 『高麗時代の 研究』, 韓國文化叢書 4輯, 乙酉文化社, 1948.

최원석, 『우리땅 풍수기행』, 시공사, 2000.

『불사리 신앙과 그 장엄』, 통도사성보박물관, 2000.

『佛舍利莊嚴』, 국립중앙박물관, 1991.

『安東 造塔里寺址』, 경 북문화재연구원, 2007.

『臨河寺博塔址』, 안동대박물관, 1988.

『提川市誌』 下卷, 提川市誌編纂委員會, 2004.

### 3. 논문

高裕燮, 「朝鮮의 博塔에 대하여」, 『高裕燮全集』 3, 通文館, 1993.

고한덕, 「안동지역의 전탑 연구」, 안동대학교대학원 동양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金箕寧, 「高麗 太祖 訓要十條의 再考察」, 『佛敎研究』 19, 2003, pp. 47-85.

김현정, 「안동 봉정사 대웅전 중창과 후불벽화 조성배경」, 『상명사학』 8·9합집, 2003, pp. 127-155.

- 文明大, 「韓國塔浮彫像의 考察(1)」, 『佛敎美術』 4, 東國大博物館, 1979.
- \_\_\_\_\_, 「신계사 삼층석탑 팔부중상의 연구」, 『金剛山 神溪寺』, 대한불교조계종 정보문화재 학술총서10, 2002.
- 白南珠, 「金剛力士像의 成立과 展開」, 『美術史學研究』 208호, 한국미술사학회, 1995. 12.
- 申龍澈, 「統一新羅 八部衆像의 考察」,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제24집, 2003.
- \_\_\_\_\_, 「統一新羅 二重基壇石塔의 形式과 編年」, 『東岳美術史學』 9호, 2008.
- \_\_\_\_\_, 「경북 안동지역 佛塔의 편년과 특징」, 『한국민족문화』 34집, 2009. 7, pp. 91-118.
- 梁銀容, 「道詵國師 裨補寺塔說의 研究」, 『先覺國師道詵의 新研究』, 영암군, 1988, pp. 183-248.
- 임세권, 「한국 전탑의 전래와 변천과정」, 『미술사학연구』 242·243, 한국미술사학회, 2004.
- 田正中, 「新羅石塔 八部衆像의 樣式과 變遷」, 『文化史學』 16, 문화사학회, 2001.
- 曹元榮, 「신라하대 팔부신중상 연구」, 『역사와 경계』 39, 부산경남사학회, 2000.
- 崔柄憲, 「道詵의 生涯와 羅末麗初의 風水地理思想」, 『韓國史研究』 11, 1975, pp. 101-146.
- 최원석, 「영남지방의 裨補寺塔에 관한 고찰」, 『한국사상사학』 17집, 2001, pp. 169-204.
- 韓載沅, 「統一新羅 石塔浮彫 八部衆像 研究」, 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 \_\_\_\_\_, 「統一新羅 石塔浮彫 八部衆 圖像과 配置 研究」, 『미술사연구』 20, 2006.
- 허형욱, 「통일신라 범천 · 제석천상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 황인규, 「고려 裨補寺社의 설정과 村莊의 운영」, 『동국역사교육』 6, 1998, pp. 47-78.
- \_\_\_\_\_, 「無學 自超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 水野さや, 「韓國江原道襄陽陳田寺址三層石塔の八部衆像について」, 『美學美術史研究論集』 16호, 1998.

## 국문초록

본 논문은 탑이 지닌 여러 기능 가운데 지역을 수호하는 비보탑의 형성과 전승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된 연구 범위가 되는 안동 지역은 경주시를 제외하면 단일 시군으로는 가장 많은 불탑이 남아있으며, 분포범위도 좁은 지역에 집중된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불탑의 건립 시기가 고려 초기로 집중된 점, 다른 여타 지방지에 언급되지 않은 불탑과 관련된 다양한 전승과정 이 『永嘉誌』에 남아 있는 점 등에서 여러가지 단서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결과 안동 불탑의 특성이 지역을 수호하는 비보탑의 개념으로 성립 및 전승 되었을 가능성을 문헌과 실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안동 불탑은 지역민의 각별한 관심과 보호로 전승되어 왔다는 당시 불탑관의 새로운 변화와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역사적으로 불탑은 여래의 사리를 봉안하는 분묘이며 신도들에게는 여래의 깨달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삼국시대에는 국가를 지켜주는 호국의 구심체로 인식하게 되었고, 통일신라시대에는 개인의 추복을 비는 대상체로서의 인식적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신라 말기부터 고려 초기에 이르러 탑이 가진 관념은 변화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裨補寺塔說이다. 즉, 지역에 地勢나 水勢를 따져 핵심적 장소에 탑을 세우면 탑이神通력을 발휘하여 그 땅을 다스리고 결국 공공의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보사탑설의 성립은 부처에 의지하여 지세를 다스림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공간적 개념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안동의 불탑은 이 같은 탑신앙의 변천과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안동은 유교문화의 중심지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안동이 도시의 기능을 수행했던 시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줄곧 안동민에게는 비보탑이 존재했다. 조선 중기에 편찬된 『영가지』는 현재 남아 있는 어느 地方誌보다도 압도적으로 다수의 불탑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는 점, 또한 자세한 건립 위치와 건립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점에서 당시 안동민이 불탑에 갖고 있던 관심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안동민에게 있어 불탑은 단순히 불교의 상징물을 뛰어넘어 나와 고을을 지켜주는 수호체이자 동시에 모두가 지켜나가야 할 대상체였던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 Abstract

#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Buddhist Pagodas in Andong According to *Yeonggaji*

**Shin Yongchul\***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bibotap*, a category of Buddhist stone stupas whose role is to protect and watch over a town or a local area, by examining historical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ir emergence and their development and evolution over the centuries. The study focuses on stupas of this type surviving in Andong, which is only second to Gyeongju, the ancient capital of Silla, in Korea, in terms of the number of stone pagodas and stupas. Pagodas in Andong, heavily concentrated in a relatively small area, have been also noted for the fact that the vast majority of them date from early Goryeo. Meanwhile, *Yeonggaji*, a local gazetteer of Andong, contains a wealth of historical information related to pagodas, the type of information seldom found in other literature of this kind. This paper discusses both documentary evidence provided in ancient chronicles and concrete archaeological evidence, pointing to the fact that stupas and pagodas in Andong and its environs were erected primarily as *bibotap*, in other words as guardian monument for the local area. The paper also argues that historical residents of Andong paid particular attention and care to pagodas in their local neighborhoods, as a result of this new perception about pagodas, which were previously only considered religious monuments consecrated to Buddhism and Buddhahood.

The original purpose of a Buddhist pagoda is to house Buddha's sariras. Pagodas, thereby,

---

\* Head Curator of Tongdosamuseum

also served as an object of religious worship, guiding the faithful closer to Buddha's teachings. There had been, however, some deviations from these original functions, in the course of history.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pagodas were increasingly perceived as defense symbols, guarding the country against the enemy threatening the integrity of its territory and safety of its people. Later in the Unified Silla period, pagodas became the objects through which people implored Buddha for furtherance of personal fortunes and earthly gratifications. Yet another shift in the perception of Buddhist pagodas came sometime between late Unified Silla and early Goryeo. Under a theory known as "bibosatapseol (complementary Buddhist stupa theory)," a Buddhist pagoda erected at a well-chosen spot, based on feng shui considerations related to the energy of land and water, would have supernatural powers controlling its surrounding areas in a manner beneficial to human habitation, ultimately benefiting the local community. *Bibotap* was, therefore, born from the idea that one may control the energy of land with the power of Buddha and achieve greater good for the community. Pagodas in the Andong area bear a particularly strong testimony to such shift in the perception of this religious monument and associated change in the tone of the Buddhist faith.

Andong is mostly considered in today's Korea as a historical center of Confucian culture. However, there is a host of *bibotap* in Andong, erected over many centuries since early years after it first became a city inhabited by a sizeable population through to the Joseon period. *Yeonggaji*, a local gazetteer of Andong published in mid-Joseon, for instance, offers detailed information about Buddhist pagodas and stupas peppering this city, in amounts far exceeding similar information found in other surviving gazetteers of its kind from elsewhere. *Yeonggaji* provides precise locations of many of the pagodas and accounts on circumstances of their construction, suggesting the level of interest taken by local residents, in this matter. For people of Andong, stupas and pagodas were more than simple symbolical monuments to the Buddhist faith; they were spiritual guardians of their town, deserving protection by the community.